

화려한 색상의 반응성 염료(2)

골프는 19세기 후반에 영구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 1873년 캐나다에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로열몬트리올 골프클럽이 창설되었으며, 1887년 미국 최초의 클럽과 코스를 자랑하는 폭스버그 골프클럽이 발족되었다. 그 후 20년도 못되는 동안에 황금기를 구가함으로써 영국에 맞먹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1894년 미국골프협회(USGA)의 전신인 미국아마추어골프협회가 창립되었고, 1895년 제1회 아마추어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에 전미(US)오픈선수권대회도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에 있는 3,400개 이상의 골프클럽이 미국골프협회에 가입했으며, 9개의 국내선수권대회와 6개의 국제아마추어선수권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미국의 골프는 20세기부터 영국을 능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은 국력이 피폐해지면서 골프계도 침체되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호경기에 의해서 미국 골프의 대중화는 눈부시게 진전하여 모든 면에서 영국 등을 압도하였다.

한국에는 1897년 무렵 함경남도 원산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골프의 시초는 1900년경 함경남도 원산항의 한국정부 세관관리로 고용된 영국인들이 세관 안의 유목산 중턱에 6홀의 골프장을 만들어 경기한 것이 처음이다.

또한 1913년 원산 근처 갈마반도(葛麻半島)의 외인촌(外人村), 황해도의 구미포(九味浦)에도 외국인들의 코스가 있었고, 목책으로 엄중히 막아 한국인은 물론 일인의 출입도 금지하였기 때문에 규모는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골프사(史)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영친왕(英親王)이다. 영친왕 부처는 1924년 무렵부터 일본에서 골프를 즐겨, 이따금 서울에 와서 골프를 즐겼다.

1921년 조선철도국은 미국인 덴트의 설계로 지금의 서울 효창공원(孝昌公園)에 9홀의 코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효창공원의 골프장은 1923년 그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장되고 1924년 이왕가(李王家)의 육림 중심지인 청량리(淸涼里)로 옮겨 18홀이 완공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골프사상 처음으로 “경성골프구락부(京城俱樂部)”라는 골프클럽이 탄생하였다.

그 뒤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며, 이 같은 영향으로 1937년 9월 전국 골프구락부 협의기관인 조선골프연맹 창립총회가 경성골프구락부에서 열려 한국골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국 프로골프의 역사는 연덕춘(延德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7세 때부터 골프를 배웠으며 일본인의 주선으로 일본에 가서 골프수업을 하여 3년만에 일본 오픈경기에 출전, 8위에 드는 급성장을 보였다.

1941년 한국인으로서 처음 일본 오픈경기에서 패권을 잡았다. 그가 배출한 수많은 프로선수 중에서 한장상(韓長相)이 1972년 일본 오픈경기에서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우승하였다. 1971년 한장상·김승학(金承學) 조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골프에서 선전, 단체 5위에 들었다.

1970년대에는 한장상이 한국 오픈경기를 제패하였고, 김승학은 아시아 서킷 1차전인 필리핀 오픈경기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하였다. 이에 더하여 1974년 조태운(曹泰雲)이 한국 오픈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프로들은 큰 타이틀 5개를 쟁취하는 사상 초유의 “황금의 3년”을 맞이하였다.

1980년대 이후 단연 최상호(崔上鎬)가 두각을 드러냈으며, 여자 프로골퍼로는 구옥희(具玉姬)가 미국과 일본에서 활약, 국제적 명성을 떨쳤고, 원재숙(元載淑)·고우순(高又順) 등도 일본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제일 교포 김영창(金榮昌)은 1981년 미국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아마시니어 선수권대

회에서 우승, 세계 정상에 올랐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1990년 베이징[北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세리·박지은·김미현·송아리 등이 세계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기대회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골프 붐이 일어 대중화시대를 활짝 열었다.

골프 경기는 크게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의 2가지가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정해진 수의 홀의 총타수를 내서 적은 쪽을 승자로 하는 경기로, 볼을 친 횟수와 헛스윙, 벌타도 포함된다. 일반 골퍼는 자기가 친 타수만큼의 합계, 즉 라운드의 총타수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뺀 수(not)의 많고 적음에 의해 승부를 결정한다. 핸디캡을 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스크래치라 한다.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부를 겨루어 이긴 홀이 많은 쪽을 승자로 하는 경기이다. 또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변형으로 핸드캡이 있다. 핸드캡은 골프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시스템이다. 핸드캡에는 0부터 30까지 있는데, 초보자는 모두 핸드캡 30으로 정해져 있다.

골프경기는 당초에는 개인 대항의 매치 플레이에서 출발하였는데, 이 경기는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 최종 결승전을 끝마칠 때까지 시일이 너무 걸리는데 반하여, 스트로크 플레이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도 하루에 우승을 결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경기방법이 있다. 스리섬은 1인 대 2인의 경기로, 2인 조는 1개의 볼을 교대로 플레이하는 매치 플레이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이다. 2인조를 남녀로 짝짓는 것을 믹스트포섬이라고 한다. 스리볼매치는 세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 볼을 플레이하여 다른 두 사람과 개별적으로 매치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베스트볼매치는 1인 대 2인 이상의 매치 플레이로, 인원수 많은 쪽은 각기 자기 볼로 플레이하고 그 홀의 최소 타수를 지닌 사람이 한 사람의 스코어와 대항하는 방식이다. 포볼매치는 두 사람씩 한 쌍이 되어 각자 자기의 볼로 플레이하여 각 쌍의 두 사람 가운데 소수 타수자끼리 승부를 겨루는 매치 플레이로, 홀 공략을 서로 상의한다.

어게인스트파는 각 홀의 파에 대항하는 매치 플레이로, 라운드가 끝나면 이긴 수가 많을수록 우위로 삼는 경기이며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 핸디캡이 있는 홀에서는 파보다도 1타가 더 많은 경우 하브(무승부)로 간주한다. 톱스톤은 코스의 토털파와 자기의 핸디캡을 거기에 더한 수만큼 치고 난 지점에서 플레이를 끝내고 그 지점에 자기 이름을 적은 기를 세운다.

따라서 플래그 토너먼트라고도 한다. 타수가 같아도 출발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기를 세울수록 우위가 된다. 포인트터니는 어게인스트파와 비슷한 매치인데 파로 무승부가 되면 2점, 1타가 많으면 1점, 1타가 적으면 3점(이하 순차적으로 점수를 더한다)으로 총득점이 많은 사람을 우위로 하며,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